

민주 “서울광장 지켜라” 장외 투쟁

민주당이 장외 끝에 마침내 9일 ‘거리’로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이 마무리된 지난날 31일 정세균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 등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내걸며 대(對) 공세의 포문을 연 지 9일 만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는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과 서울시가 불허한 데 반발, 시한부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광장개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오후까지 1박2일 시한부 농성 경찰 강제 해산 방침에 충돌 가능성

리표를 달긴 했지만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었던 6·10을 앞두고 민주당이 강공으로 나섰다. 정세균 대표가 6·10 범국민대회 이후 형성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강공으로 나섰다. 정세균 대표가 6·10 범국민대회 이후 형성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강공으로 나섰다. 정세균 대표가 6·10 범국민대회 이후 형성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의 한 호텔에서 백남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주도하는 시국간담회에 참석, 상호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6·10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인 서울 광장을 봉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6월 민주항쟁

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빚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자유총연맹이 먼저 10일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접수, 진보와 보수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 진행 결과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특히,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지 대한 우려를 접점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동뉴스 tuim@kwangju.co.kr

“4대강 살리기는 낙동강 살리기”

강운태·이용섭 등 지역 국회의원들 비판 잇따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8일) 이후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9일 이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대해 “낙동강 살리기에 편중됐을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요사업이 누락된 일방통행식 사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본사업

비 16조9천억원 중 낙동강에 58%)가 투입되는 반면에 영산강은 15.4%로 낙동강 살리기 예산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중심은 수질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7%인 3조9천억원만 편성됐고 영산강도 수질개선대책이 483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끌어올린다는 정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계획에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광주시 하수관거 정비 예산 2조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장차 광주 내륙항 건설에 대비하는 박진나무 워터프론트 사업도 포함되지 않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이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는 취지에 벗어났으며 부동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

MB-박근혜 ‘화합의 만남’으로 돌파구

■ 승부수 던진 박근혜 묘책 있다

급방이라도 터질 것 같던 한나라당의 쇄신 과제가 박근혜 대표의 승부수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박 대표가 내놓은 대화합 묘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대화합을 위해 직을 걸겠다.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다”며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내 초선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을 비롯한 쇄신파가 박 전 대표의 사퇴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시한을 못박으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머지않은 시점에 공개될 박 대표의 묘책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근원적 화합책 마련, 당·정·청 탕평인사 건의 및 시행, 화합형 대표 추대론 등이 검토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다.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은 9일 “박 대표가 ‘근원적 화합’을 말했다”며 “이는 경선 승부를 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국정동반자 선언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 실적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근원적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스스로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를 ‘소화합’이라고 평가한 만큼 ‘대화합’은 더욱 높은 수

준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표가 계파 수장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화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사전조율을 통해 대화합의 뚜렷한 메시지나 명확한 행보를 약속한 뒤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화합’을 기조로 내걸, 청와대의 전면 인적 쇄신을 통해 친박 인사를 증용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화합형 대표 추대론, 즉 박근혜 전 대표 내지 박근혜 전 대표가 지명한 인사의 대표 추대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존 ‘김무성 원내대표론’을 확대 발전시킨 개념인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친이계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이 대통령 측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이 박 전 대표 측의 일관된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이와 친박 모두를 잠재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명분을 가진 묘안만이 박근혜 대표가 당초 기대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상수-이강래 ‘개헌 논의’ 공감

조문정국·미디어법 등 현안 놓고 날선 공방

여야 원내대표 관훈토론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9일 개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6월 임시국회와 조문정국,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으나 개헌 필요성에 대해 선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 등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문제를 정리한 뒤 개헌을 논의하자며 사실상 전제조건을 달아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안 원내대표는 “재왕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라면서 “권력을 분산시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고 또 권력을 나누니까 괜찮은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런 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

을 나눠 (국정운영을)해 나가면 어떻게 지열하게 정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고 희망했다. 이 원내대표도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잘못된 통치구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여당이 만약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제발전”이라면서 “6월 국회를 통해 통치구조 등 개헌 문제에 대해 하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노건평 ‘동생 역대 시계 물렸다’

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특위’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면담했다. 건평씨는 면담에서 노 전 대통령 부

부가 받았다는 ‘범종시계’와 관련, “내가 동생(노 전 대통령)의 환갑 전날 태광실업의 한 직원으로부터 시계를 받은 뒤 한참 후 동생 부부가 봉하마을로 내려왔을 때 아내를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며 “동생은 그 사실을 몰랐으며 나도 얼마짜리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이 ‘1억원 짜리다’, ‘노동부에 버렸다’는 등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얘기한 것은 너무하다. 너무 악의적이었다” 주장했다고 특히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원어민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2012년 교과부 한국형 TOEFL 말하기 고득점을 위해
광주유니버시티 외국어 센터를 위해
여수해양 EXPO 외국인 관광객 맞이기를 위해
(강의형태 1:1, 1:2, 10:20, 20:40)

초·중학교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인터넷 화상 영어
외국인 1회 매월 60분 압구정 Trend, 압구정 Pride
압구정영어회화 070-7433-0594
www.영어말하기.kr

= 2010년 합격율 대비한 여름방학 대특강!! =
7·9급 공무원 소직렬
3040 합격특별반모집 행정부처사원철약공정호견조지방술 합후소 소방인력 8395명
=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행일: 국·공·민 4월 / 7급, 9급 시행
채용인원: 7.9급 국가직 4천명, 지방직 4~5천명
= 수강료 보조금 수혜안내 =
7월 1일 (주·야 합반 모집)
= 여름방학 이벤트 = 종합반 2개월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교재 5권 무료 증정(가액 185,000원대)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영섭
경 찰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합격배출 1위 교수진
임이 이광희
경찰 경력 22년
경찰 경력 15년
www.gmega.co.kr 226-5050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제20회시험 10월 25일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6개강 6월 1일
국비지원 선착순
광주고시학원 227-8003 971-0002